



전북대 심리학과, '정신건강 서포터즈 영마인드' 대상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학생들이 '2기 대학생 정신건강 서포터즈 영마인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9일 전북대에 따르면 심리학과 오윤영, 강다희, 김진정, 김유진, 최영서 학생으로 구성된 '하트마음 팀'이 우수한 정신건강 서포터즈 활동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학생의 정신건강 편견해소 및 주권인식 향상을 위해 공황장애 증상 바로 알기 캠페인 및 직장 내 정신질환 관련 차별개선 읍부즈맨, 청년정신건강정책 제안의 내용으로 활동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응원한 하트마음 팀은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편견 해소 기여했다는 높은 평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 해외 취업 아카데미 운영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영미권 국가 및 일본, 글로벌 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해외 취업 아카데미'를 지난 7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및 글로벌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취업 동향 분석과 취업 노하우 제공, 1:1 인터뷰, 직무 맞춤 입사서류 작성 및 면접 시뮬레이션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재학생 및 도내 청년들의 해외 취업 지원에 힘쓰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 청소년통일골든벨, 우혁 학생 '최우수상'

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의 무주군협의회는 최근 열린 '2020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전북대회'에서 무주고 2학년 우혁 학생이 최우수상인 '전라북도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전북지역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식 온라인으로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북지역 14개교 고등학생 250여명이 참가했다. 청소년통일골든벨은 다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통일, 역사문제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는 퀴즈 형태로 만들어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할 목적으로 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는 매년 개최하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전북대, 청년TLO 육성사업 기술사업화 교육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0년 청년TLO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청년TLO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전문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만 100명의 청년TLO 연구원을 채용한 전북대는 이번 하반기에 선발된 청년TLO 연구원 45명을 대상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다. /장은성 기자

“유학생 여러분, 힘내세요”

전주대, 지역사회 후원 유학생 장학금 전달식... 8개 단체에서 총 1500만원 기부

전주대학교(이호인 총장)는 9일 지역사회 후원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장학금은 호스트패밀리(유학생과 한인가정 결연 프로그램)로 인연이 된 한국 가정 및 천사장학금, ISF 국제학생회, 서편담장학재단, (주)플러스건설, 디모데316, 몽골바이블클래스 선교회, 유학생 후원회 등 지역사회 단체에서 출연한 장학금으로써 1,500만원을 유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모히라 학생(관광경영학과, 우즈베키스탄)은 “전주대가 한국생활, 학업 등 많은 행복을 안겨줬다”며, “학교와 지역사회 후원자들이 주신 도움 잊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국제교류원장은 “후원에 동참해 준 호스트패밀리 가정과 지역 기업 및 단체에게 감사드린다”며, “유학생들을 정성을 다해 돌봐 준 덕분에 많은 국제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조기에 정착하고 학업 성취 또한 높다”고 말했다.



플러스건설 나춘근 대표는 “코로나19의 국제환경으로 인해 유학생들이 더 힘들고 어렵겠지만, 교직원, 지역 주민들이 국제학생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갖고 도전하는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는 한국어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취약계층 장애우 돕기... 디너 자선공연 성료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물품 후원하고자 연예인 자선 공연을 벌여 후원금을 모금, 따뜻한 겨울 보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취약계층 장애우 돕기 디너 자선 공연'이 최근 로즈하우스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수정 가수 밴드가 주최하고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품드레제이션협회, 전주시장애인복지협회, 클로엔 성형외과 등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가수 이수정, 김미남, 선이, 박상복, 오정숙씨, 팬플룻 연주자 노남식씨, 라니무용단, 노래감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순임씨 등이 무대에 올라와 열띤 공연을 벌였다. 이날, 장애인돕기 후원금(일백만원)을 이수정씨가 대표해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에 전달했다.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김양욱 대표는 “장애인들에게



후원금으로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데 도움을 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 한울타리봉사단, '엄마의 밥상' 후원

전주지역 봉사단체인 한울타리봉사단(회장 이희서)이 9일 아침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하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에 써달라며 전주시에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봉사단 회원들의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만들어진 이 성금은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300여 명에게 과일과 유제품, 떡과 같은 특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희서 회장은 “올해 6주년을 맞은 엄마의 밥상 사업에 힘을 보태고자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도시 전주 만들기 위해 적극 동참해주시는 봉사단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엄마의 밥상', '지혜의 반찬' 등 아동



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이순복 예수병원 간호국장, 병원 발전기금 기탁

예수병원 이순복 간호국장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지난 6일 병원 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이 국장은 “자랑스러운 예수병원에서 근무한 37년은 큰 보람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년퇴임을 맞아 그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표현하기 위해 발전기금을 후원한다”고 전했다. 이순복 간호국장은 1983년 예수병원에 입사한 후 2013년부터 6년 5개월간 간호과장을 역임하고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간호국장을 맡아 봉사하는 등 37년간 근속했다. /김윤상 기자



진안군 에코파낙스, 저소득층에 화장품 전달

진안군함의 글로벌화에 앞장서고 있는 ECO PANAX 김성훈 대표가 9일 진안군 군수실에서 관내 저소득층에 전달해달라며 2,5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전달했다. (주)에코파낙스는 인간과 자연의 이로운 소통을 꿈꾸는 기업을 기업 이념으로 삼고, 홍삼을 활용한 신제품개발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수의 특허출원을 하였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내 업체 중 선도적인 업체로 평가받고 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수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비전대 미용건강과, 베트남 유학생에 성금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 학생 및 교수일동은 9일 교내 세미나실에서 화재로 피해를 겪은 베트남 유학생인 뷁안짱(미용건강과 1학년)을 돕기위한 모금을 통해 준비한 성금 120만원 및 기증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뷁안짱 유학생은 지난 10월 31일 주거중인 원룸 화재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김은영 학과장은 학과 교수 및 학생들을 독려해 피해 학생 돕기 모금을 기획하고 이에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전했다. 김은영 학과장은 “지난 3월 유학생 돕기 생필품 기증에 이어 화재로 실의에 빠진 유학생을 돕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성금을 모금했다”며, “뷔안짱과 다른 유학생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준 학과 교수님들과 미용건강과 모든 학생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완료

남원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주거환경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20년도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완료하며,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올해 초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비영리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월 착공해 10월 완료까지 관내 저소득 계층의 노후주택 46동을 개보수하며 소득 양극화를 해소했다. 이 사업은 도비와 시비 각각 40%, 60%로 구성되어 기구당 400만원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의 지붕개량, 벽체보수, 보일러, 도배·장판, 전기, 가스시설 등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남원=김기우 기자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 취약지 환경정비 나서

전주시 인후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황승일)와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임순)는 9일 도심 취약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회원들은 이날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정안리로 일대와 평소 주민들이 자주 찾는 아담길공원에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치우는 등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또한 그간 꾸준히 제기되었던 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변 청소와 잘못된 분리수거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직접 재분류 작업도 병행 실시했다. 황승일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노력해 깨끗해진 동네를 보니 많은 보람을 느낀다”며 “쾌적한 인후3동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박임순 새마을부녀회장은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새마을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1등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9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급여 이상 389개 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주기 1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진료 적정성 평가는 입원 1인당 정액수기로 의료서비스를 과소하게 받지 않도록 하고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정신요법 및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재원 및 퇴원환자의 입원일수 등 총 9개 지표를 평가했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전체 지표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은 종합점수 95.9점으로 전체 평균 66.8점보다 훨씬 높은 점수로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1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663-699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84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6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익산지사 858-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